



'목회와 영성'을 주제로 목회자세미나가 나성한미교회에서 열렸다.



3월 9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제 132회 세계 기도일 예배가 열렸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나이다” 제 132회 세계기도일 예배

전세계 여성들의 슬로베니아를 위한 '세계 기도일 예배'에 남가주 지역 여성들이 함께 했다.

3월 9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교회에서 남가주 지역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회장 유화진 권사) 주최로 열린 제 132회 세계 기도일 예배에는 약 150여 명의 한인 여성들이 참석해 슬로베니아의 여성들과 세계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했다.

올해의 주제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눅 14:15-24)로, 슬로베니아 여성들이 기도문을 작성했다. 한인 여성들이 슬로베니아 여성들의 기도문을 낭독했고, 중간에는 드림교회코르마하프팀, Forest Chamber, LA여성선교협창단, 정신여교 동문 코러스, 햇세드 글로벌 예술선교회 등이 특별 공연을 맡았다.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가 설교하고 최미란 사모, 백화순 권사, 이영희 권사, 정의희 권사, 강정희 장로, 이련애 장로, 김헬렌 목사가 슬로베니아를 위한 중보기도를 이끌었으며 온누리교회 석승연 권사가 인도하는 가운데 세계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김지훈 목사는 “세계기도일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으기 때문”이라며 “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위한 합심 기도의 내용은 1.슬로베니아의 치유와 회복 2.여성들의 생명권과 인권 3.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가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나도록 4.미국의 신앙 회복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를 위해 5.세상의 치유, 회복, 평화를 위하여 등이었다.

사랑한인감리교회 이수자 목사가 약속과 파송 순서를 담당했고, 유화진 권사의 광고와 찬양, 인랜드교회 이종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2020년 세계기도일 예배국은 짐바브웨(아프리카 동남부)이며 올해 9월 16일(월)~18일(수)에는 하와이 호놀룰루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2019년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공동의회가 열린다.

1887년 메리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미국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된 세계기도일은 전세계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초교파 여성 기도운동이다. 미주 한인 여성들은 1979년부터 동참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미주 70여개 지역에서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 향한 두려움과 떨림 유지해야” 동부교협 주최, 김영봉 목사 초청 목회자세미나

'목회와 영성'이란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나성한미교회에서 5일 오전 9시 30분에 열렸다.

LA동부교역자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사권의 기도' 저자인 김영봉 목사(와싱톤사권의교회)가 강사로 섰다. 이날 남가주 목회자들이 다수 참석해 세미나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오전 <목회와 영성>이란 주제로 강연한 김영봉 목사는 '목회의 성공'이란 주제와 관련해, “생산성”의 시대인 요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신실성'이다.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생산성을 보고 판단하니까 조금 열매가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주눅이 든다”라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할 토끼는 '신실성'”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한 영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관련해, “2005년 작은 미국교회에서 와싱톤한인교회로 가면서 언제 목회를 마쳐야 할까를 생각했는데, 내 영성이 피폐해지면 그만

둘 생각을 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내 영성이 건강한지 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중에 대한 질문으로, '회중이 영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 대해,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섬기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중생활 하는 교인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면서 “그때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목회자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김영봉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영성이 무게 중심이다. 그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 영성이 결정된다”라면서 “영성은 하나님 나라와의 접촉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했다. 계속하여 '영성'에 관련해 김 목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영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데 신앙에 기복이 있을 때, 때로는 포르노를 보거나 놀음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면서 “그래서 영성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이프 가드를 쳐 놓는다. 삶 속에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지만, 늘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며 “목회를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은 목회 영성을 일적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경건의 것들이 다 '일'이 된다.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리게 된다. 변화는 성령께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만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리처드 포스터의 말을 인용하며 영성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기독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LA 본교

- 준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음악학과
- 석사과정 : 목회학과 / 신학과 / 상담심리학과 / 음악학과
- 박사과정 : 목회학과 / 교회음악학과(신설)
- 수료증과정 : WMU 상담교실 / 바이블 아카데미

OC 캠퍼스(상담심리대학원)

- 석사과정 : 상담심리학과

온라인 프로그램

- 준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학사과정 :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석사과정 : 목회학과 / 신학과 / 상담심리학과
- 수료증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 / 유아교육 원장 및 교사 / NGO 사역자

| ABHE, ATS 정회원 |

미연방정부 학비 지원 • 미국 대학 학사/석사 학위 • 한국어 강의 • 온라인 수업
 미국 주류 기독교대학(원) 편/입학 • 유학생 1-20 발급 • 미 군복 장교 지원

| 문의 |
 admissions@wmu.edu
 213.388.1000
 www.wmu.edu



리들리시 매니저와 리들리시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감사장 수여후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남가주새언약교회가 3월 10일 오후 4시에 교회설립 8주년 기념 및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리들리'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남가주한인목사회, 기념행사 갖고 3.1운동 정신 되살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가주한인목사회(이하 남가주목사회, 회장 김관진 목사)가 지난 4일(월)에 3.1여성동지회(회장 이연주)를 포함 46명의 임원들이 중가주 리들리(Reedley)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하여 리들리 시청앞 야외식장에서 목사회 부회장 박세현 목사의 사회로 기념예배와 함께 기념행사를 갖고 3.1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박세현 목사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심진구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가 성경봉독을 한 후 피종진 원로목사(남서울중앙교회, 남가주 목사회 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대회장)가 "네 입을 크게 열라"(시편 81:1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축도로 마쳤다. 샘신 목사(남가주목사회 직전회

장)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식은 윤에스터 목사 선창으로 애국가 제창, 삼일절 노래 제창(3.1 여성동지회 선창), 김관진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대회장) 기념사 후에 이번 목사회의 행사를 위해 적극 협력한 리들리시 매니저와 리들리시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감사장이 수여되고, 이어서 김관진 목사가 사적지 의의 및 안내를 한 후에 3.1여성동지회 선창 만세삼창으로 마무리했다. 김영구 목사(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의 진행으로 3부 3.1운동 독립만세 재연 행사(퍼레이드)에서는 송영일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후에 독립지사들의 기념비와 독립문이 있는 사적지까지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태

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애국가와 3.1절 노래를 부르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3.1운동 독립만세를 재연했다. 피종진 목사는 기도를 통해 이민 선조들의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과 독립지사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민선조들과 독립지사들이 세운 교회당과 이민 선조 170명이 잠들어 있는 묘지를 찾아 그 당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선조들의 조국을 향한 사랑과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결의했다. 기념식 후에는 백지영 목사(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가 오찬을 위해 기도하고 점심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제공]

남가주새언약교회 8주년 기념 이전 감사예배

"교회 다운 교회" 향한 하나님의 뜻

남가주새언약교회(잔 강 목사)는 3월 10일(주일) 오후 4시에 교회설립 8주년 기념 및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애나하임 새성전에서 드린 이날 예배는 총 2부로 진행됐다. 잔 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 1부 축하예배에서는 이용남 목사의 기도, 강정윤 목사의 축가, 양홍규 목사의 봉헌 기도 이어 오병의 목사(지방회장, 남가주벨레교회)가 "우리를 보라"(행3:1~10절)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OC카운티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LA에서 OC카운티로 남가주새언약교회를 크게 확장 이전시킨 이유는 이곳에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제 2부 시간에는 잔 강 목사가 교

회연혁 및 교회시설을 소개했으며 강태광 목사가 축사하고 문장혁 장로가 인사하고 광고를 전한 후 박용덕 목사(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30~40대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룬 남가주새언약교회는 지난 2월 LA에서 애나하임으로 교회를 확장 이전했다. 트윌라 리드 공원(Twila Reid Park) 맞은 편에 위치한 새성전은 본당 외 친교실, 방음실, 주방, 영아 및 유아실, 소그롭실, 사무실 등 여러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와 11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에 수요회예배와 금요성령집회로 드리며, 매일 새벽 6시(월~금)에 새벽기도회가 있다. www.new2011.org 주소: 3111 W. Orange Ave, 1st floor, Anaheim, CA 92804

월드미션대학 '스프링 페스티벌'에 다양한 행사 풍성

공개 강의, 정종원 교수 찬양 집회, 장터



월드미션대학교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과 3일에 신학, 상담학, 음악 등 다양한 주제의 공개강의와 찬양

집회 및 장터 등을 통해 교제하는 Spring Festival을 연다. Spring Festival 일정은, 4월 30일(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OC 캠퍼스에서 "성경장애의 이해"(김화자 교수)에 관한 공개 강의를 있으며, 5월 1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LA캠퍼스에서 저녁 식사, 정종원 교수와 함께 하는 콘서트 및 "중독장애"(김경준 교수), "바울의 종말론"(남중성 교수), "목회자의 자기관리"(이철 교수), "유

다포로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정성은 교수) 공개강의가 있다. 5월 3일(목)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월드미션대학 장터가 열리며,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심형진 찬양사역자의 콘서트,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미술을 활용한 아동상담"(박숙경 교수), "과학과 신학의 관계 변화 및 대화"(정명호 교수), "다 문화 리더십"(최윤정 교수)의 강의를 가진다.

베델교회 2019 심령부흥성회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

베델교회는 3월 15일(금)부터 17일(주일)까지 교회 본당에서 이종식 목사(뉴욕 베이스아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초청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주제로 심령부흥성회를 연다. 집회 일시 및 설교 주제는 다음과 같다. 3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고난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3월 16일(토) 오전 6시 "라함의 믿음" 16일(토)* 오후 7시 "무엇이든지 구

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17일(주일) 1부예배 7시 15분 "아브라함의 믿음1" 17일(주일) 2부예배 9시 15분 "아브라함의 믿음2" 17일(주일) 3부예배 11시 30분 "사라의 믿음" 17일(주일) 4부예배 2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금, 토 저녁집회는 Child Care가 제공된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성대학교
www.aeu.edu
기독교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특전
- SEVIS I-20 Form(대학 및 대학원) 자체발행
- 연방정부 장학금(Grant) 및 융자(loan)가능
- Title IV 승인 (FAFSA)
- 성적과 자격에 따른 다양한 장학금(11종류)
학위과정
- 학사 : 기독교학과(BA), 경영학과(BBA)
- 석사 : 목회신학(M.Div), 선교학(M.M), 상담학(M.A.C), 경영학(M.B.A)
- 박사 : 목회학(D.Min), 상담학(D.C)
입학지원 절차
1. 기본자격 : 중생의체험과 소명감이 확고한 자
2. 입학서류 : 본교 소정 양식(홈페이지 다운로드)
3. 전형방법 : 1)서류심사, 2)면접(장학생 선발)
4. 산정마감 : 가을학기(8월 20일), 봄학기(1월20일)
5. 입학상담 : 연중 수시
최고의 시설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참석 가능 또한 온라인 수업과 저녁 수업 병행 가능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Mimi lee T(323)643-0301)
미성대학교의 특징
- CHEA와 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정식 학위 수여
- 신속한 F-1/I-20 발행, CPT/OPT 가능
- 1-day 수업으로 full-time status 유지 가능
- 온라인 수업, 모바일 수업 가능
- 다양한 수업 진행, 영어 수업 진행
- 저렴한 학비로 수업료 부담 적음
- 넓은 파킹장, 현대화 된 시설, 친절한 서비스,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
- 수시 입학 가능
- MBA수업을 통해 영주권 2순위의 기회, 취업과 승진의 기회 가능
- 캘리포니아 주정부(BPPE) 및 연방교육국(CHEA) 인가
- 북미기독교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및 신학대학원 협의회(ATS Candidate) 회원
- 졸업 후 목회자, 선교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사역
- 한국과 미국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강의
- 국내외 우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 상담학 석사 과정 이수자에게 MFT(결혼 및 가족치료) 상담사 자격증 부여
총장 류종길 박사
T. 323-643-0301, F. 323-643-0302 1818 S.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 Email : info@aeu.edu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교회와 3·1 독립운동 (V)

선교사들의 관여문제

3·1 독립운동 당시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점은 관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다.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한 선교사들의 태도는 선교사들의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출되었는데, 이 일을 적극 지지한 사람으로부터 극력 반대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그러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중립을 지킨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교회나 교인들이 정치적인 면에 깊이 관여하여 신앙적인 면 이외의 문제에 빠져들어, 그런 문제로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생활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항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지원은 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3·1 독립운동 시 선교사들이 설 수 있는 위치는 분명해진다. 즉 정신적 내지 도덕적 지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립의 위치에 섰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거사를 몰랐을 수도 있다. 이 거사에 대해서 일제의 경찰이나 헌병 조직조차 전혀 모르게 진행된 사실을 본다면, 또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잘하라는 격려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만류도 양자 모두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인 시위를 일제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교회와 교인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선교사들은 이런 사태에 중립적인 태도만 취할 수는 없었다. 마펫(S.H.Moffett) 선교사가 "만행에 대해서는 중립이 아니었다."고 한 말에서 정확히 표현되었다. 일제는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우편, 철도를 감시하고, 보도기관에 압력을

가해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만행은 해외에 즉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다. 이 일을 알린 사람들 중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던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F.W.Scofield 石虎弼 1889-1870) 박사였다. 그는 일본 군인들이 제암리에서 저지른 야만적 행위를 사진찍어 해외로 보냈고, 또한 「꺼버릴 수 없는 불」(Unquenchable Fire)이라는 소책자를 써서 전 세계에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였다. 그가 보낸 사진과 보고서가 세계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시위운동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미국 교회의 지원은 큰 역할을 했다. 배재학당 교장이며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였던 신흥우(申興雨)는 1919년 5월 미국에서 열리는 미 북감리교회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출국하였다. 그는 그 대회의 의장이었던 노드(F.M.North)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으므로, 그에게 한국의 시위운동과 일제의 만행을 알렸다. 이 사실은 곧 미국 교회연합회(FCCCA) 실행위원회에 알려졌고, 이 실행위원회에서는 사실을 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그해 4월에 이 위원회는 「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이라는 제목의 소책자 5천 권을 발간하여 세계에 배포하였다.

미국 기독교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는 이 책자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일본정부에도 박해의 즉각적인 중지와 한국에서의 행정적 개혁을

요구하는 전문을 그 해 6월 26일 일본 수상에게 보냈다. 미국 정부도 주미 일본 공사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3·1 운동은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일제는 세계의 여론 앞에 굴복하고 그들의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다. 그 해 5월에 개최된 미국 북장로교회 총회에서도 한국교회에 대해 동정을 표하고 그들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조건들의 개선'을 찾는 데 도덕적 지지를 한다는 뜻을 표했다.

선교사 개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여러 있었다. 평양 송실전문학교 교수 모우리(E.M.Mowry 牟義理 1880-1970)는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한 학생들을 자기 집에 은신시키고, 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선교부에 보낸 혐의로 6개월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선천 신성학교 교장 맥쿰(G.S.McCune)은 그 지방 교회 지도자들과 운동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추방당했고, 마펫 목사는 세계 선교사대회에서 한국 독립을 지원하는 강연을 했다는 이유로 한동안 구금당했다. 충청도 강경에서는 동양 선교회 소속 토마스 목사가 운동에 협조하다가 헌병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서울의 감리교 선교사 노블(W.A.Noble), 빌링스(B.W.Billings 邊永瑞 1881-1969)도 이 운동에 적극 협력하다가 박해를 받았다. 한편 부산의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의 데이비스(Miss Davies) 양과 흑킹(Miss Hocking) 양이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시간 동안 심문을 받은 후에 풀려났다.

선교부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운동에 협력 또는 사주한 일은 없었어도 개인적으로 교회의 피해에 분개하고, 물려 지원한 일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관여에 대해서는 사전 전에는 관여가 없었으나, 사건이 진행되면서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선교부 단체로도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일에 힘을 모아 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낮은울타리, <회복 사역의 목회로의 적용>세미나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는 <회복사역 목회자 세미나>를 3월 19일(화)과 20일(수)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플러튼 블루리본 아카데미 센터(Blue Ribbon Academy Center: 141 W. Wilshire Ave, D Fullerton, CA 92832)에서 개최한다. 참여 대상은 목회자, 사모, 사역자다.

조희창 목사가 "회복과 생명력"을 주제로 한 주제강의와 "회복사역의 목회로의 적용" 강의를 한다. 특히, 부모 회복 학교를 목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모회복학교 실제로 경험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예배, 강의, 기도시간 등으로 구성되는 부모회복학교는 낮은울타리 각 지부에서 봄, 가을에 열리

는 6주~8주 과정의 평신도 과정이나 목회자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교회로 도입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부모회복학교(HMMS)외에도 자녀를 위한 자녀회복학교(TEENZ HMMS, KIDZ HMMS)를 영어,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낮은울타리 646-300-4790, 714-900-8835, re1907@gmail.com로 할 수 있다.



Love of Concert 출연진들이 출연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이노니아선교회, 원로 목사 향한 아름다운 섬김

목회 일선에서 고독하고 힘들게 사역했던 사역자들과 사모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프로그램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단체들이 있다.

3월 12일(화) 오전11시 허버시티에 위치한 가나교회(안병권 목사)는 100여 명의 원로목사들을 초청해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점심을 대접했다.

제 1부 예배는 최학량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이처권 권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안병권 목사가 빌립보 4장 4절을 본문으로 "놀라움이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자니남 형제가 바이올린 독주를 하고, 원로 목사회 회원, 조국과 민족을 위

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김창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제 2부 Love of Concert가 진행되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피아노 트리오), '내가 영으로'(테너), '온 마음대로 예배 합시다'(바이올린 솔로), '주님께 귀한 것 드려'(Cello Solo), '호산나'(소프라노 솔로), '진도 북춤'(Praise Dance),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Piano Trio)를 선사했으며 박종희 목사와 최순식 집사가 '목련화'를 함께 부른 후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모임은 코이노니아선교회가 주최하고 사우스베이 목사회가 주관했으며 가나교회가 협찬했다.

얼바인 소망케어교실 개설

소망소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는 2019년 3월 7일에 얼바인에 소재한 베델한인교회(김한오 목사)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교실을 새로 개설하고 예배를 드렸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 자원봉사자들과 실무자를 포함하여 20명이 참여한 첫 시간에는 유분자 이사장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전했고 베델교회 정승락 목사가 참석해 기도했으며 최경철 사무총장이 메시지를 전했다.

소망케어교실은 치매 환자 가족들의 심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환자 본인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얼바인 소망케어교실은 베델한인교회 새신자교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얼바인 지역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모임은 4월 부터 매주 첫째 주 목요일 10시 부터 11시 30분까지 베델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망 소사이터티가 치매 환자 가족 및 간병인을 위해 개설한 지원모임은 플러튼 지역, 애너하임 지역, LA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문의: (562)977-4580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아보시고 르세라즈~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기독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풍성한 열매를
Being One With Christ, Bearing Abundant Fruit
(요한복음/John 15:5)



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_818-834-7000 / f_818-899-8355 www.anconnuri.com

■ Worship Hours
Sunday 주일예배
1부 - 7:45 am
2부 - 9:30 am
3부 - 11:30 am
젊은이(HIS)예배 - 2:00 pm
GM(장애우) - 9:30/11:30 am
ANCC(영어회중) - 9:30/11:30 am
주중예배
새벽기도(월-금) - 5:30 am, (토)6:00 am
수요예배 - 7:30 pm
금요기도 - 8:00 p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03>

유럽의 선교 부흥을 꿈꾸는 청년들(2)

지난주의 선교칼럼을 읽고 한 독자가 전화를 했다. 80세 되신 은퇴 선교사님이신데 57년전 20대 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한다. 그때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어디를 가든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 당시엔 캠퍼스 청년들이 저마다 선교 사명이 강했었다고. 자신도 그중 한 명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여행사를 통해 유럽 여행을 했는데 55년전 갔던 그 예배당들을 들렀는데 주일예배 성도가 10여명 앉아 있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와 한 동안 앉아 누웠다고 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길은 간 것이다. 은혜가 유럽선교캠프 진행 중에 임했다. 둘째 날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감사 선교사가 인도하면서 “우리 중에 가정의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며 그 사정을 나누었다. 200여 유럽 청년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한다. 어떻게 가정의 그런 큰 일을 당했는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온 것도 충격, 그 지경에서 선교비를 주며 그 자녀를 가게 한 부모에게도 충격, 그런 중에 파송예배를 드린 교회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때 한 독일교회가 결단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들을 모델 삼아 선교부흥을 일으키자고 유럽을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키자는 각오가 터졌다. 그리고 그날 밤 예배까지 다 마친 후에 독일교회 성도들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한 그 청년을 격려하기 위해 즉석 모금을 했다. 유로 달러로 \$2,650이 모였다. 미화로 3천불이 넘는 액수다. 다음날 곧바로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 청년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유럽 다민족의 청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갔다. 그리고 유럽의 청년들은 넷째 날 마지막 날 결단의 기도회를 하면서 앞으로 매년 부흥을 위한 선교파송의 꿈을 꾸며 유럽의 전 나라를 돌며 “유럽선교캠프”를 열기로 결단하였다. 그런 아름다운 영적 모임이 한 독일교회에서 열렸고, 미주 한인 교회의 EM 청년 리더십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주 선교 칼럼을 읽고 미주의 한인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유럽 선교부흥의 꿈을 갖고 그 땅에 선교집회를 열었다는 글을 읽으며 자신의 젊은 날의 선교부흥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했다. 그 은퇴 선교사님의 회고를 들으며 필자도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다. 그리고 기도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주도국이었던 저 유럽의 나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땅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선교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유럽 선교캠프에 은혜를 끼쳤던 우리 교회의 간증이 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유럽선교캠프를 참여한다고 결정하고 가기 이틀 전 그 중 한 청년의 집이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인해 전소되는 우환이 있었다. 청년의 부모는 우리교회의 집사 부부이다. 갑자기 일어난 불로 집안 전체의 가재도구는 물론 가구, 옷가지, 컴퓨터 등 모든 것을 잃었다. 정말 하루 아침에 그 가정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런 중에 그 부모도 청년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유럽선교 캠프행에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보였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시 화재 피해를 당한 가정의 자녀인 청년을 포함 3명의 파송예배를 드렸다.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의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구약에 나타난 행복어 ‘아셀(Ashel)’ 연구(1)

‘성경은 행복학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이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기 28의 축복(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을 누리는 삶을 지향합니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창1:28의 축복을 회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성경이 행복 교과서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수많은 행복관련어를 가지고 참된 행복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복받은” “복있는” “복” 등 성경에는 행복관련 핵심어와 그 파생어들이 신구약 전체에 골고루 풍성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행복관련어가 1700여회에서 2000여회 등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행복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행복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언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가르치고 누리고 배우는 민족이었습니다.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는 찬란한 헬라문명에서 다듬어졌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행복 연구 결과로 헬라어는 행복어가 풍성합니다.

필자는 신구약에 나타난 행복 관련어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행복의 개념을 독자와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셀’은 창세기 30장 13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레아가 자신의 몸종인 실바가 또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나

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합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아셀’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누리는 기쁨(행복)”을 의미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각주에서 아셀을 기쁨으로 설명합니다.

구약 곳곳에서 ‘아셀’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며 다양한 의미를 함의합니다. 시 84:5(“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에서 복이 있는 (Blessed)이 아셀입니다. 잠29:18(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이나 욥5:17(불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도 아셀은 복이 있는 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랜디 알콘(Randy Alcorn) 박사는 위의 구절들에 등장하는 아셀은 “복있는(Blessed)”으로 번역되는 것 보다는 “행복한(Happy)”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들 중에는 행복한(행복)로 번역한 성경이 많습니다. 아셀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셀’의 행복을 정리합니다.

‘아셀’의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행복입니다. 신33:29은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한 사람들 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평가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행복자여!”

가 히브리어로 ‘아셀’입니다. 이 구절의 아셀을 흠정역(KJV)을 포함한 여러 영어 성경들은 Happ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출발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행복입니다. 구원 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근본적인 행복을 충분히 누리야 합니다.

‘아셀’의 두 번째 행복은 하나님께 보호받는 행복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Blessed)”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와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때 행복합니다.

‘아셀’의 세 번째 행복은 하나님 징계를 수용하는 행복입니다. 잠언 3:12~13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하십니다. 성경은 징계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하나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인 은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함으로 고통의 날에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 ‘아셀’의 행복입니다.

요컨대 아셀의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행복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행복합니다.

“위탁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케어팩”

클라우드 펀딩으로 1만5천910 달러 모금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지난 1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위탁 가정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케어팩’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총 1만5천910 달러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금되었으며, 백팩, 생활용품, 의류 등이 후원 용품으로 들어왔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모금된 후원금으로 위탁아동 150개의 케어팩 만들

기 위한 용품들을 구매했으며, 3월 9일에는 40여 명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케어팩 150개를 만들었다. 위탁 아동 케어팩은 위탁가정으로 배치될 위탁아동을 위한 필수 용품으로 구성된 가방이며, 연령별, 성별로 총 10종류를 만들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해줘서 당초 목표액인 1만 5천달러를 초과 달성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인사회에서 위탁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케어팩은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자신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만들어진 위탁 아동 케어팩 일부는 한인가정상담소를 통해 위탁 아동에게 일부 전달 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웨스트코비나에 있는 아동보호국 산하 APP(Asian Pacific Project)유닛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밸리채플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00

금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주인'에교회 ICC

최혁 담임목사 | iccc.office1@gmail.com | (818) 363-5887

MP채플

주일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수요영성집회 오후 7:45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MP채플: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전쟁과 치유를 통한 선교확장

열왕기하 5:1-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열왕기하 5:1-14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옛 이름입니다.

BC853년쯤에 더 북쪽에 있는 앗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였던 아람을 나라를 빼앗기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앗수르에서 원정왔던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했고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앗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도록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아만 장군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적군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임 당했을 것이고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방부장관 정도의 그의 위세는 왕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전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통하여 시대적 세계선교라는 복된 사명을 이미 주지(周知)시켜 오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부흥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세상적 정치는 누가 하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라와 민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시대에 세계를 복음으로 제패(制覇)하며 인류복음화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 민족은 가장 복받은 민족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대가운데 쓰임받고 더 잘 섬기게 하시는 조건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생겨나서 살다가 죽어가야 할 모든 사람들, 우리도 역사의 한페이지에 등장했다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지, 그 다음 세계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미리 유념(留意)해서 천국 갈 자격 갖추기를 서두르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나아만을 통하여 앗수르를

물리치게 하시고 구국공신이 되게 하심으로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되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쓰지 아니하시고 아람나라를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원하시어 존속시키시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차례 아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의 날을 누리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조건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신앙생활이 해이하고 나태해질 적마다 하나님은 아람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쳐부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육신의 본능적 욕구를 앞세워 현실세상과 타협하며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아람군대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금식하며 회개하고 육신이 원했던 세상조건의 죄악된 근성을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오로지 신앙인격 수양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인정받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해야겠다고 새 출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아람나라를 이스라엘이 바로서게 하기 위한 몽둥이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람나라를 귀하게 여겨 앗수르가 물리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한 몽둥이로 상비(常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은 기세등등하고 천하를 장악한듯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대며 교만을 생활의 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나라를 건져 구원하심을 망각하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변방에 쳐들어갔고, 그곳을 약탈해 가면서 계집아이 하나를 생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마치 전리품인 양 그 아내에게 몸종으로 줍니다.

이 소녀는 비록 포로로 끌려가 몸종이 되었지만 신앙이 돈독한 아이였습니다. 원수의 장막에서 몸종노릇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다. 오히려 현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응해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상전을 하나님 섬기듯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포로가 되어 이곳에 끌려온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입장은 어찌되었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목적과 섭리가 어떤 것인가에 기도하며 기대를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국력으로는 아람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약소국으로 침탈당해 왔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세

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이 소녀를 통하여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토록 교만하여 우쭐대던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가며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그 집안에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장군의 아내는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했고 나아만 장군도 그 신세가 문둥병으로 끝장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왕에게 올라가서 소녀의 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람왕은 각종 선물을 신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하늘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필시 이 편지를 구실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사환을 왕에게 보내어 군대장관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일행은 엘리사의 처소를 향하여 갑니다.

엘리사에게 도착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몸에 손을 얹거나 무슨 수술을 통하여 자신을 낫게 해줄 것이며 아람군대의 장관으로 예우(禮遇)하고 후대(厚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몸종을 내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고 전하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 엘리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떠나려합니다. 이때 그 종들이 나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 하여도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행하지 않았겠나고 권유합니다. 종들의 간청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이곳에 왜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거나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살펴 볼 수 있을 때 겸손해집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과장하고 치장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허수아비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았던 나아만 장군도 이제 겸손하여져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몸을 일곱 번 씻으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 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길들이기도 하시고 질병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진리위에 바로 서고 성령이 충만해서 전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수로 선교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잘못될 때 몽둥이 격으로 쓰이기 위한 아람나라도 앗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몽둥이가 없어질까봐 나아만 장군을 붙들어 쓰심으로 앗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겸손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해내시는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 교만함으로 자신들의 알맹이는 썩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허세로운 치장거리로 과장(過裝)을 하거나 가장(假裝)을 해서 안됩니다.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直視)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지옥 길에 내려앉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복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구원해내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행복한 글쓰기 교실

1. 행복한 수필쓰기

인생의 추억과 교훈을 근사하게 남기세요.

2. 행복한 시 쓰기

가슴에 담긴 노래를 시로 풀어 놓으세요.

■ 일시 : 3월 16일(토) 오전 10:00 (사전 등록 받습니다)

■ 장소 : 예은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

*작가가 되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비로 책 출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속적인 작품 발표를 도와 드립니다.



회장 강태광 목사

크리스찬 문학 마을

회장 강태광 목사 (323)578-7933
사무총장 김헬렌 (818)923-8004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성서 창세기에서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의 **저투범아 결정을 환영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는 동성결혼과 동성애 목회자를 금하는 교회법을 확정하였습니다
 한인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른 이 결정을 존중하고 계속 지켜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수자들이 가진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열린 마음으로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교회 이름 / 지역별	교회 주소	담임목사	교회 전화번호	교회홈페이지 / e-mail
로스엔젤레스 동부지역 로렌하이츠 / 브레아 / 포모나 / 히스페리아				
남가주 주님의 교회	1747 Nogales Street, Rowland Heights, CA 91748	김낙인	626-965-9191	joonimchurch.com
언약교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구진모	909-622-8815	covenantumchurch.com
주시랑 연합감리교회	480 N. State College Blvd., Brea, CA 92821	이정환	626-575-9191	joosarangumc.org
히스페리아 한인연합감리교회	18623 Main St., Hesperia, CA 92340-1218	민병렬	718-757-1399	byungmin011@gmail.com
로스엔젤레스 서부지역 가디나 / 라팔마 / 로스엔젤레스 / 칼슨 / 토랜스 / 풀러튼				
나성금란 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이석부	310-973-5106	krumc.org
LA 복음 연합감리교회	1200 S. Manhattan Pl., Los Angeles, CA 90019	김호용	323-641-0691	lagumc.org
LA 중앙 연합감리교회	420 E. 20th Street, LA, CA 90011	조승홍	213-290-7665	ndcho1004@yahoo.com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8111 Walker Street, La Palma, CA 90623	김도민	714-226-0300	lapalmakoreanchurch.com
LA 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이창민	310-645-3699	lakumc.org
로스펠리즈 연합감리교회	1800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7	신병욱	323-382-0691	lfumc.com
시온 연합감리교회	231 E. Lomita Blvd., Carson, CA 90745	오경환	310-834-5504	zionkumc.net
월서 연합감리교회	711 S. Plymouth Blvd., Los Angeles, CA 90005	신영각	323-931-9133	wilshireumc.org
은혜의 강 연합감리교회	2351 W. Orange 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홍종걸	714-870-9991	graceriver.com
토랜스 한인연합감리교회	3646 Newton St., Torrance, CA 90505	강현중	213-235-7659	torrancekumc.org
오렌지카운티 / 샌디에고 지역 가든그로브 / 라구나우즈 / 어바인 / 샌디에고				
가든그로브 연합감리교회	12741 Main Street, Garden Grove, CA 92840	박용삼	949-812-1233	ggkoreanumc.com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24442 Moulton Pkwy., Laguna Woods, CA 92637	림학춘	949-380-7777	lagunaumc.org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6701 Convoy Ct., San Diego, CA 92111	이성현	858-279-9191	kumcsd.org
어바인 드림교회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원홍연	949-345-5791	irvinedreamumc.com
로스엔젤레스 북부지역 글렌데일 / 패사디나 / 몬트로스 / 밴나이스 / 우드랜드힐스 / 그라나다힐스 / 옥스나드 / 카마리오 / 산타마리아				
드림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정영희	626-793-0880	dreamumc.com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6260 Tyrone Ave., Van Nuys, CA 91401	안정섭	818-785-3256	vannuysumc.com
밸리 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류재덕	818-366-0089	vkumc.com
벤틀 한인연합감리교회	311 S. Broadway, Santa Maria, CA 93454	남기성	805-922-1004	smbethelkumc.org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272 Corsicana Dr., Oxnard, CA 93036	남재현	805-485-0100	oxnardkumc.org
우드랜드힐스연합감리교회	5650 Shoup Ave., Woodland Hills, CA 91367	이상호	818-346-1617	lovingtreechurch.blogspot.com
은혜 연합감리교회	211 S. Pacific Ave., Glendale, CA 91204	한진호	818-241-9352	lagracekumc.org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5443 Ash Street, Los Angeles, CA 90042	함무근	323-257-7713	mooham45@gmail.com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	291 Anacapa Drive, Camarillo, CA 93010	이상영	805-389-3161	ckumc.net
태평양 연합감리교회	699 Monterey Rd., South Pasadena, CA 91030	이도원	213-248-9297	pacificumc.com
크레센타밸리 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김용근	323-774-2992	cvkumc.org



가주태평양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 총회장 이정숙 권사
 가주태평양한인연합감리교회 총남선교회 총회장 송준 집사
 하와이 한인연합감리교회 협의회



사진은 조항석 목사 사역팀의 아이티 구호 활동.

선교사 철수 중인 아이티에 위험 무릅쓰고 도움 손길 보내

아이티의 정치적 불안으로 현지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고아들의 도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이티를 방문하는 뉴저지 목회자가 있어 주목된다.

뉴저지뿌리깊은교회 조항석 목사는 4일 7명의 자원봉사자들과 2박3일 일정으로 아이티 현지를 방문해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당초 조항석 목사 사역팀은 현지 사정이 악화돼 지난 2월 중순 예정됐던 아이티 방문일정을 처음으로 연기했었다. 아이티 사역 11년 동안 다른 사역팀이 철수하거나 방문을 취소하던 콜레라 사태 때나 지카 바이러스 사태 때도 아이티 구호활동을 묵묵히 수행해 왔지만 처음으로 방문일정을 취소할 만큼 아이티 현지의 상황이 심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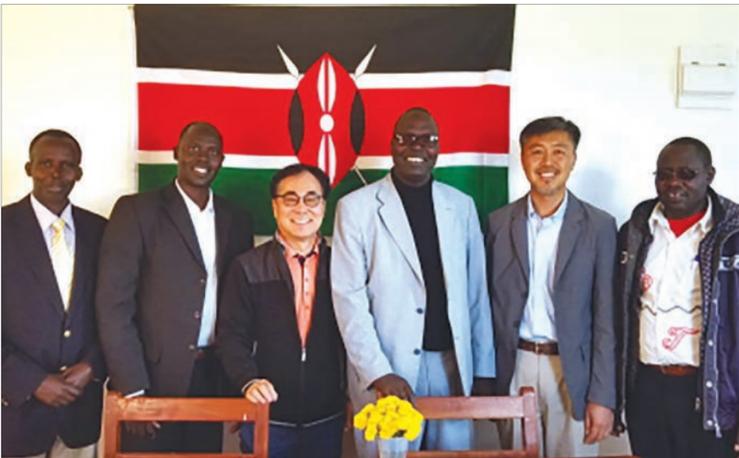
외신들은 당시 아이티 상황과 관련, 조베넬 모이즈(Jovenel Moise)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시위는 점점 과격해져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행정이 마비됐다. 수도 포트 프린스와 연결되는 모든 도로는 막혀 있는 상태였다. 조항석 목사는 이번 아이티 방문을 결정하면서 “데모는 찾아들고 많이 정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오늘 현재까지 미국정부는 여전히 아이티를 ‘여행금지 국가(Level 4)’로 지정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아이티를 ‘우리 국민 철수 권고 지

역(여행경비 3단계)’으로 지정해서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 더 큰 고통 가운데 저희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고아들 생각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다녀오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이티에서의 활동과 관련, “2월 7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데모 때문에 의약품과 식품, 생활필수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고 고아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힘든 상황”이라면서 “고아들에게 특별한 의약품 공급을 하려고 하며, 학용품을 전하고, 아픈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병원에 보낸 아이들과 수술을 준비 중인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탈장 수술이 필요한 요셉이도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티 현지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과 은행 상점들은 문을 열고 있지만 긴장 상태”라면서 “많은 지역의 학교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매년 이때쯤 전국적인 축제로 열리는 카니발은 금년에는 3월 5일이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에 조항석 목사는 “식량과 의약품 공급을 위한 후원이 더 넉넉히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시고 저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면서 “늘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에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GCU, 한인 세운 신학교 최초 문화인류학 철학박사과정 ATS 승인



김창환 총장과 케냐 마라 지역 아프리카 내지교회 교단 관계자들 및 윤진수 선교사

조지아선추립대학교(총장 김창환 박사, Georgia Central University 이하 GCU) 문화인류학(Ph.D in Intercultural Studies) 철학박사 과정이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에서 정식 승인됐다.

한인이 세운 미국 내 신학교 가운데는 최초로, 명실상부 신학대학 인가기관 중 대표적인 ATS에서 최고의 학문수준을 요구하는 J스탠다드로 인가를 받았다. GCU를 넘어선 한인 교계의 쾌거이기도 하다. 김창환 총장은 인터뷰에서 “2017년 6월, ATS 정식회원이 되고 온라인과정이 승인된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박사과정까지 승인 받음으로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선교에 큰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운을 뗐 뒤 “2년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성록 이사장 및 이사들을 비롯, 박사원 원장이은무 박사과 신대원장 황진기 박사를 필두로 한 교수진과 스태프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선교현장에서 20-30년간 수고해 온 선교사님들이 박사과정을 통해 자신이 해온 사역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정리함으로써 다른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일년에 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

며 다양한 선교지에서 선교사 재교육 및 현지인 신학교육에 힘쓰고 있는 김 총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선교의 필요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절실하다고 한다.

아프리카 케냐의 경우 아프리카내지교회(AIC) 교단은 케냐 내 최대 교단이지만 교단 신학교 조차 디플로마나 수료 과정이 전부일 뿐 정식 인가받은 학사나 석사과정의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A국의 경우 선교사는 물론 현지인 목사들조차 국가적인 차원의 감사와 방학가 있어 온라인 과정이 아니면 도저히 양질의 신학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GCU는 ATS에서 승인된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현장 교육은 비교적 여행이 자유로운 주변 국가나 도시에서 GCU교수들이 방문해 인턴십 코스로 제공한다.

GCU는 부지런히 여러 나라에서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교단과 신학교들과 MOU를 맺고 교육선교 차원에서 저렴한 등록금만 받고 온라인 과정과 현장 집중 수업 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역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조지아 사립도서관 협회 가입으로 갈릴레오(GALILEO) 통해 방대한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앤더슨 김 기자

교회 | 미션 | 선교 | 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이단2세를 위한, 이단기정음치료를, 선교경영을 순증하는 교회

사람을 만나다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7와 카밀리아),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nti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빙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주중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인사화와 가정을 섬기는 믿음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화)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건너 반대편)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e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차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 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주중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월-토) (소액) 오전 11:00

정창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몸,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리더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양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부유아, 이물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심자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 신의 호를, 바른 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차부, 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령으로 매개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찬양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토)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아인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 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30(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汉语班(周二、周四、七点半、)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班(周二、周四、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1:00 한어찬양 오후 7: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새문안교회, 새 예배당 완공
마당과 1층 시민들에 개방
부드럽게 휘어진 곡선과 곡면, '어머니 교회' 형상화



새문안교회 새 예배당 외관. ©교회 제공

‘한국의 어머니 교회’ 새문안교회(담임 이상학 목사)에서 새 예배당을 완공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새문안교회는 현 부지 예배당을 헐고 기공예배 3년 6개월만에 새 예배당을 건축했다. 새문안교회는 132년 전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 사택 사랑채에서 시작했으며, 이번 건축으로 6번째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다. 직전 예배당은 1972년 건축됐으며, 본당이 1천여석에 불과해 5~6천여명에 이르는 출석 교인들을 수용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이에 예배를 5회로 나눠 드리고, 여러 장소에 흩어져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했으나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교회 측은 “교회는 광화문 인근에 위치해 1973년 도심 재개발사업계획구역으로 지정, 재개발사업이 아닌 모든 건축행위가 금지됐다”며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설치도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대안은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기존 예배당을 헐고 그 자리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교회 측은 “1984년부터 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새 예배당 건축안을 채택했지만, 본격 추진된 것은 2007년 당회원 간담회 착수 결의 이후”라며 “오랜 준비를 거쳐 2010년 설계사를 결정하고, 2014년 임시 예배처소로 이사한 뒤 기존 예배당 철거공사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새문안교회는 6군데로 나눠져 있던 교회 공간이 하나로 합쳐져

교회 활동과 공간의 효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교회 측은 “새 예배당은 전 교인의 기도로 세워졌다”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건축을 위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2016년 4월부터 건축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기도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5백여명의 24시간 현장 릴레이기도가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새문안교회 새 예배당 새 예배당의 정면은 공중을 향해 부드럽게 휘어진 곡선과 곡면으로 이뤄진 모습이다.

교회 측은 “이 땅의 ‘어머니 교회’라는 의미를 담아, 어머니가 양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며 “왼쪽의 숫자 ‘1’ 모양의 탑은 ‘첫 번째 교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다.

외부 벽면을 두른 재료는 성지 예루살렘의 색으로 지칭되는 베이지색 석재로, 비교적 값싸면서도 실용적인 화강석(사비석)을 사용했다. 새문안교회는 새 예배당을 이웃 주민과 사회를 향해 열린 공간으로 가급적 많이 개방할 방침이다. 1층과 교회 마당 전체는 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1층에는 모더니즘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혔던 기존 예배당을 축소한 개방형 시민홀이 들어선다. 한국에 개신교가 전래된 때부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새문안 역사관’도 새 모습으로 단장했다.

새문안교회는 오는 4월 21일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 사태’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소송 취하 새 국면



지남해 가톨릭노회에서 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명성교회 청빙과 관련해 분쟁을 겪고 있는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출과 관련, 남삼욱 목사가 예장 통합 총회재판관 판결을 앞두고 자신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지난 8일자로 취하했다.

남삼욱 목사는 소 취하서에서 “총회 임원회에서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되어 노회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또 총회 임원회에서 지난 2월 중순 경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결의하기로 한 사실과 이에 따라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를 총회장 명의로 소집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측 신임위원회는 “이제 합법적 노회장 선출 여부에 관한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원고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해당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김수원 노

회장과 신임위원들의 정상적 노회 업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제 총회 임원회는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하고, 임원 선거를 둘러싼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신임위원회가 서둘러 노회 상황을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삼욱 목사가 소취하서에 밝힌 내용대로,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고노회’로 판단·규정한다면 명백한 불법이자 직권남용일 것”이라며 “아울러 서울동남노회의 반복과 갈등을 이유로 소취하에도 수습전권위원회가 존속한다면, 그 역시 총회 차원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프랜시스 찬 목사.

“목회자들이여, 인위적이 아닌 성령의 파도를 타라”

미국 프랜시스 찬(Francis Chan) 목사가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선호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엑스포넨셜 콘퍼런스(Exponential Conference)에서 강연자로 나선 찬 목사는 예배소서 5장을 언급하며 “목회자들은 스스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이 교회의 수장이 될 때 진짜 일들이 벌어진다”면서 만약 하나님 대신 내가 교회의 수장이라고 여길 때, 이러한 생각이 교회에 해로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저는 당신에게 붙어있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머리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원치 않습

니다. 교회를 건설하는 일이 이러한 마음에 달려있다면, 교회를 함께 유지하는 일이 이러한 마음에 달려있다면, 주님, 저는 이 마음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의 머리인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인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육신을 제하시고, 프랜시스 찬의 모든 것을 제하소서. 프랜시스 찬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 작은 프랜시스를 보게 됩니다. 그를 제하소서. 이곳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나이다”라고 그는 기도했다.

찬 목사는 그러면서 최근 텍사스 주 와코에서 본 ‘웨이브 풀’(wave pool)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이 수영장에서는 파도가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서핑과 너무 다르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흡사 교회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그는 “나는 파도를 만들 수 있다. 9시 20분에 시작해서 30분에 정점에 오르고 50분에 끝낸 후, 아이들을 찾아올 수 있다. 난 모든 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파도를 만들 수 있다. 그들은 걷어다가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 난 ‘이번 주에는 사람이 만든 파도 같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수영장 내의 인위적인 파도에 만족하고, 적게 기대한다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프랜시스 찬 목사가 강사로 참석한 2019 엑스포넨셜 콘퍼런스는 3일 4일부터 7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 소재한 올랜도제일침례교회에서 진행된다.

강혜진 기자

우간다 소녀 36명 입양한 미 프로야구 선수 화제



입양한 36명의 소녀들과 함께 한 매튜와 애슐리 보이드 부부. ©킹덤홈

미 프로야구 선수인 매튜 보이드(Matthew Boyd·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우간다 소녀 36명을 입양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튜 보이드와 아내 애슐리는 우간다 소녀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입양한 소녀들에게 음식, 옷, 집을 제공했다.

보이드는 우간다 성노예 사업에서 더 많은 소녀들을 구해내기 위해 비영리재단 ‘킹덤홈(Kingdom Home)’을 설립한 후,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을 통해 우간다에 땅을 매입하고 소녀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보이드 부부는 작년, 36명의 우간다 소녀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한 여성의 사연을 전해들었다. 당시 이 여성은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심사숙고 끝에 두 사람은 우간다 소녀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성매매 피해자였고, 한 소녀는 9살

때 신부로 팔려가서 남편 때문에 몸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했다.

2018년 시즌을 마친 후, 보이드 부부는 우간다를 방문해 소녀들에게 가방, 운동화, 학용품 등을 제공했다. 앞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본인이 원할 경우, 대학 교육비까지 지원할 생각이다. 보이드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간다에서 이뤄지는 아동 성노예 사업을 끝낼 수 있다. 나쁜 이들은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한다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슐리는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더 이상 성매매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들에게 직업적인 기술을 전해주고, 성매매 이상의 가치를 가르쳐준다면, 아이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보이드는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랜스에서 진행 중인 시범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고 있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O.C,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이명익 담임목사
UBM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이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길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아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유아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름을 배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한기홍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목)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北 인권 문제 여전히 심각”

토마스 오헤야 키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키타나 보고관은 이날 열린 제 4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수용소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엄격한 감시를 지속하는 등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난 한 해 동안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적절한 절차 없이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다. 수용소는 고문과 가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시민에 대한 감시와 이동의 자유 등과 같은 심각한 제약이 온전히 남아있고, 김정은 일가와 정권에 대한 비판 발언은 일체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성폭행을 당한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밝혔다.

키타나 보고관은 “중국을 비롯한 각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지 말고 ‘현장 난민’으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올 봄 미국에서 개봉하는 기독교 영화 6편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소개



올 봄 개봉하는 기독교 영화 6편.

최근 몇 년 간 기독교 영화가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을 거두면서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기독교 영화 제작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올 봄 개봉하는 기독교 영화 6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1. ‘더 아일랜드즈’(The Islands, 3월 22일 개봉) 영화 ‘더 아일랜드즈’는 하와이 여자 추장 카피올라니(Chiefess Kapiolani)가 2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녀의 개종으로 하와이 섬 전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영화 제작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그녀의 기독교 개종은 세계지도자의 도덕적 용기에 따른 위대한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언플랜드’(Unplanned, 3월 29일 개봉) 낙태 반대 영화 ‘언플랜드’는 미국 최대 낙태-피임 조장 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후드’(Planned Parenthood)에서 클리닉 디렉터를 맡았던 애비 존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후 이 단체를 그만두고 낙태 반대 운동 지지자가 된 존슨은 다른 여성들이 낙태 산업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를 시작했다.

3. ‘팔라우 더 무비’(Palau the Movie, 4월 4일 개봉) 자서전적 영화 ‘팔라우 더 무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루이스 팔라우(Luis Palau)의 삶을 그렸다.

이 영화는 아버지가 사망 한 후 가난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팔라우를 보여 주면서 시작된다. 그는 라디오에서 빌리 그레이엄의 말을 듣고 영감을 얻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이 영화는 또한 그가 거리 설교자로 직면 한 시련 중 일부를 보여준다. ‘팔라우 더 무비’는 그가 올해 초 4기 폐렴으로 진단 받았다는 사실이 발표되기 전부터 제작을 시작했다. 오는 4

월 4일과 6일 미국과 중남미에서 각각 개봉 예정이다.

4.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4월 17일 개봉) 영화 ‘브레이크스루’는 블록버스터 히트작 ‘천국의 기적’을 선보인 제작자 데번 프랭클린의 새 영화 ‘브레이크스루’는 기도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 모자 조이스와 존 스미스의 기적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조이스 스미스의 입양 아들 존은 얼어 붙은 미주리 호수에 빠지게 됐고 모든 희망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나 존의 어머니는 신앙을 붙잡고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한다. 모든 전문가들의 과학적 예측을 무시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사고 후 존은 병원을 떠나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치료 받았다. 크리스 메츠, 토피 그레이스, 조쉬 루카스 등이 주연을 맡았다.

이 영화는 조이스 스미스의 저서 ‘The Impossible’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새뮤얼 로드리게즈 목사가 영화의 제작자로 이름을 올렸다.

5. 애니메이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4월 18일, 20일 개봉) 존 번연이 쓴 ‘천로역정’을 기반으로 한 CGI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된다.

이 영화는 오는 4월에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수익금의 일부는 국제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영화를 제작한 ‘레벨레이션 미디어’(Revelation Media)는 영화 초기 단계에서 20개 언어로 번역하기 위한 6만 달러 이상을 캠페인으로 모았다.

6. ‘브라이트 원즈’(Bright Ones, 4월 22일 개봉) 베델뮤직(Bethel Music)은 청소년 앨범 ‘브라이트 원즈’(Bright Ones)의 이름을 딴 최초의 장편 영화를 제작했다.

이 영화는 공연 예술 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명의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삶을 추적한다.

영화에는 켈 존슨(Jenn Johnson)과 스테파니 그렛징저(Steffany Gretzinger) 등 베델 뮤직 사역자들이 제작한 음악이 포함된다.

이미경 기자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부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 하시는 분
■ 드럼 연주 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 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 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Scott Kim Studio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 드립니다.
10년 후 펼쳐봐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Scott Kim Studio가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세요)

■ 교회 출장 사진 전문
■ 영정 사진
■ 가족 사진
■ 입관·하관 예배
■ 부동산 홍보

결혼 사진, 제품 사진
회사 이벤트, 인물 사진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 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주님미디어 새해맞이 이벤트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Stand X-Banner \$65
거치대포함 *사이트에서 샘플선택

Retractable Banner \$140

A형 스탠드배너 \$160 (디자인 포함)

NEW YEAR EVENT

말씀 액자 \$35 (16x16inch 기준)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손글씨로 제작된 말씀액자입니다. 주님미디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부제작, 교회로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용서는 하되 오늘을 잊지 말게 하소서” 영화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

뉴욕타임스 강인영 기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교차 편집과 각 인물의 인터뷰 삽입 감옥 8호 각 인물의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3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에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유관순도 그 현장에 있었다. 집에서 제작한 한국 국기인 태극기를 나눠 주며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다. 일제 헌병대가 도착해 모인 사람들을 겨냥해 총을 쏘았고 19명이 사망했다. 유관순의 부모도 사망했다.”(뉴욕타임스 ‘더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유관순, 일제 통치에 저항한 한국 독립운동가’ 중)
지난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강인영 기자가 유관순에 대한 이런 장문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국내에도 그 내용이 알려졌다. 세계 여성의 날 110년을 맞아 ‘간과된 여성들’(Overlooked)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유관순’을 소개한 것.
영화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의 시선과 큰 맥락은 이 기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영화의 시작과 끝에는 ‘뒤늦은 부고’ 기사를 쓰기 시작한 강 기자(황현주 분)의 시선이 담겼다. 먼저 영화 초반부에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때로는 전원 풍경 감상 ‘F’를 받는 등 여느 학생과 다르지 않았던 10대 소녀 유관순

(이세봄 분)의 일상을 보여준다. 이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하고 일본 도쿄에 위치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역사를 인터뷰 등과 함께 설명한다.
앞으로 소개될 인물과 역사적 사실이 많은 만큼 시간과 공간이 자주 바뀌고, 인터뷰도 계속 삽입된다.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만열 명예교수, 독립운동가 노순경 간호사의 외손자 등 전문가와 독립운동가 후손, 각 종교계 관계자들을 두루 인터뷰한다.
눈 여겨 볼 점은 영화가 ‘다큐멘터리’임에도 상당 부분을 배우들의 연기에 의지한다는 점이다. 영화는 유관순을 포함해 서대문 감옥 8호실의 방장이자 교회 전도부인이었던 어윤희(양윤희 분), 개성 3.3 만세 운동 주동자이자 유관순의 선배였던 권애라(김나니 분) 등 여러 배우의 연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에피소드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소개한다. 학생, 시각장애인, 임산부, 기생 등 각각의 직업과 사연을 가진 이들은 한 마음으로 나라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1919 유관순’

립을 위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또한 영화는 대나무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는 고문, 뜨거운 물을 붓는 고문, 가슴에 인두를 찌는 장면 등 잔인한 장면들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영화 말미에서 2015년 9월 하도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국립박물관이 된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장면을 담는다.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지난 해에도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이 ‘더는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용서해줄 때까지는 상처를 준 입

장에서는 사죄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은 진정한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워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경외감을 표현하기도 한 인물이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영화에 나오는 “나의 죽음으로 내 후대들은 반드시 자유로 만세를 부르게 하소서. 그들을 용서는 하되 오늘을 잊지 말게 하소서”라는 대사는 주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전하는 듯하다. 엔딩 크레딧 후에는 쿠키영상도 준비되었다. 한편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은 유관순문화사업

전문유한회사가 제작했고, 하세(HASE)가 공동제작으로 참여했다.
한편, 이 영화를 총 감독한 윤학렬 감독은 5월 15일 산호세를 시작으로 미주 홍보 투어에 나선다. 일정은 5월 15일 산호세, 5월 17일 ~ 27일까지 남가주(18일 LA사랑의 교회 토요 새벽기도회), 28일 ~ 30일: 달라스, 31일~6월 3일: 아틀란타, 6월4일~13일: D.C.와 뉴저지, 14일 ~16일: 시카고, 17일~24일: 시애틀과 알래스카에서 <영상문화의 분별력>강의를 전하며 ‘1919유관순’ 영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신의 기자

환상의 동양 : 오리엔탈리즘의 계보



환상의 동양: 오리엔탈리즘의 계보 | 이야기가 노부미 | 김승철 역 | 도서출판 동연

도서출판 동연은 일본 나고야의 난잔대학(南山大學) 인문학부 난잔종교문화연구소연구총서 제5권으로, 일본의 저명한 종교사학자 이어나가 노부미(彌永信美)의 역작, 『환상의 동양: 오리엔탈리즘의 계보』를 번역·출판했다. 파리고등연구원 역사·문화학과에서 공부했던 저자는 불교신화의 전승역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유럽 문화사, 종교사, 신비사상에 대한 해박한 식

견을 살려 광범위한 분야에서 평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본 저서를 통하여 1987년 시부사와 클로델상(연구와 번역 부문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문화교류에 공헌한 젊은 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일본 나고야의 난잔대학 인문학부 교수 겸 난잔종교문화연구소 소장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김승철 교수의 탁월한 번역솜씨를 통하여 재탄생된 이 책은 역사적으로 서양이 어떻게 동양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서양의 기독교 세계관이 그들의 동양관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설득력 있고, 흥미롭게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서양인들에게 형성되어 온 “환상의 동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유럽 사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서양인의 자기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기독교 문명으로, 저자는 서구에서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

로서 어떻게 보편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기독교 종말론이 정치 사회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상의 동양”이 이러한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는 서구 기독교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비서구·비기독교권에 대한 이미지로 형성되어 왔다고 간주한다.
1장에서는 기독교 세계 형성에 깊은 영향을 준 그리스와 이집트 문명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고, 2, 3, 4장에서는 유대-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라는 보편주의가 “헬레니즘의 세계주의”(288)와 유대교의 “융합”(266)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음을 설명하고 있고, 5, 6장에서는 기독교가 유럽의 “보편적” 종교가 되고, 유럽은 기독교 제국이 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7장에서는 십자군 전쟁과 피오레의 요아킴(Joachim of Fiore, 1135-1202)의 “혁명적 역사신학”을 분석하였고, 8, 9, 10장에서는 프레스터 요한(Prestre John; Presbyter Johannes, 사제 요하네스의 전설이 12세기부터 16세기까

지의 유럽에 미친 영향을 종말론과 그리고 “종말의 제국”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11장에서는 콜론의 신대륙 “발견”이 가지는 의미를 천년 왕국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12장에서는 피렌체에서 활동한 사보나롤라의 묵시록을 기술하고, 13장에서는 스페인에서의 유대인 추방과 예수회의 탄생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찾았다.
14장에서는 저자의 나라인 일본에 전도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Francisco Javier; Francis Xavier, 1506—1552) 선교사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동양의 땅을 나라인 일본이 함의하는 동양의 의미를 분석하였고, 15장에서는 “숨겨진 천사 교황” 기욤 포스텔(Guillaume Postel, 1510-1581)의 “기호론적 신학”이 갖는 종말론적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16장에서는 포스텔의 종말론적 비전이 동양의 끝에 있는 일본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근대 일본이 어떻게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적 동

양인식을 수용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서구가 만들어낸 ‘환상의 동양’은 서구의 근대와 더불어 바로 그 동양에서도 역수입된다. ‘동서문화의 융합’이야말로 ‘일본 민족의 새로운 사명’으로, 팔굉일우(八紘一宇, 천하를 한 집처럼 통일함)의 대동아공영권(천황 일신교)의 ‘지상낙원’을 쌓아올리고자 했다. 그 ‘동양에서 환상의 동양’은 이제 새로운 신비사상과 오컬트 취미, ‘최신의 물리학’과 유구한 동양적 지혜의 융합’이라는 포장을 하고서 허무주의로 투명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래된 그리고 언제나처럼 새로운 명령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저자 이어나가 노부미(彌永信美)는 1948년 출생, 불교학자이자 평론가. 파리고등연구원에서 역사문화학 수학. 불교신화의 전승역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유럽 문화사·종교사·신비사상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살려 광범위한 분야에서 평론활동을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집과정

◆학사 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석사 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박사 과정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봄학기 개강 3월 31일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밟,(학문의 길) 씹,(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 M.A 석사과정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가능
-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가능
-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봄학기개강
일 일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일본 기독교인 ‘고아의 아버지’ 소다 가이치(下)

평화운동을 하며 전국을 순회하던 80대의 소다 가이치 온화함과 관대함, 묵묵히 참고 따르는 태도, 무욕과 청렴한 내빈 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 줌

소다 가이치 옴은 비교적 최근의 인물임에도, 그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겸손한 그의 성품 때문이다. 해방 후 건너간 일본에서의 15년간 삶도 마찬가지다. 본지는 전편에 이어 일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다 가이치가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의 삶과 한국 귀환, 그리고 마지막 1년간 영락보린원에서의 삶을 간략하게 조명했다. -편집자 주

알려지지 않았던 고국 일본에서의 전도와 생활

일본 본토 혼슈 남단 주코쿠와 시코쿠, 규슈에 에워싸인 내해 세토나카카이 해상국립공원에 떠 있는 쇼도시마 섬. ‘올리브섬’으로 알려진 이곳은 카가와 배로 1시간 거리의 북쪽에 있는 섬이다. 여름이면 매일 수천 명이 몰려든다는 관광지 속에서도 조용하고 아름다운 우치노우미 해변 인근, 조그마한 촌락 카타요에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다.

소다 가이치가 바로 이곳에서 목사대리(보다는 교회지기)로 일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이곳을 중심으로 한 소다 가이치의 일본 ‘전도행전’이 부분적으로나마 한 문서에 의해 최초로 공개됐다.

일본의 전통 관습이 강하던 농촌에는 그리스도교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당시였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한 그리스도인 퇴역 군인에 의해 1947년 7월 설립된 이 교회는 카가와 도요히코의 강연회 이후 성도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을 맡고 있던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나게 됐을 때, 당시 평화운동을 하며 전국을 순회하던 80대의 소다 가이치를 맞게 됐다.

소다 옴은 우치노우미 교회와 쇼도시마 전도를 제안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노령의 저를 불러주시면 기쁘게 가겠습니다. 부디 쇼도시마에 적당할 목사가 올 때까지 저를 보내주세요. 저는 예전부터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탁발승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무급도 바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나의 신조입니다”라며 두 개의 붓끝을 보여줬다. 첫째는 無一物中無盡藏(무일물중무진장)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성구를 좌우명과 생활신조로 삼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斷行聖靈助之矣(단행성령필조지)로, ‘단호히 행하면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의미다.

1년이 채 못 된 섬 전도와 목회였지만, 그는 특유의 온화함과 관대함, 묵묵히 참고 따르는 생활태도, 무욕과 청렴한 내빈 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줬다. 그가 떠난지 20년 후까지도, 남아있던 성도들은 마음으로부터 소다 전도사의 유덕을 추모하고 존경했다고 한다.

당시 그에 대한 주변의 증언이다. “생활은 매우 검소하셔서 가을 수확기에 감귤이나 고구마를 보내드리면 아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겨울에 접어들어 추워져도 교회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 전기 코다츠를 사드렸더니 아주 기뻐하셨던 것도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1951년 쇼도시마 우치노우미 교회지기 생활에서 물러난 85세의 소다 가이치 옴은 오랜 친구 야다 목사가 창설한 아카시 우에노마루 애로원(양로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그는 기도집회와 주일예배 설교를 맡았고, 애로원 사람들과 아카시 거리 사람들의 의논 상대가 됐다. 그는 귀국 후 처음으로 조용히 자신만의 방에 머물며 성경을 읽거나 좋아하는 한시를 지을 수 있었다.

소다 옴은 3년 뒤 1m 정도의 자연석에 ‘평화’라는 글씨를 새겼다. 그의 평화 사상은 종전 후 많은 사람들이 말하던 ‘평화’가 아니라, 88세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추구했던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는 전후 일본이 전쟁 폐기를 주장했던 ‘평화선언’을 진정한 평화로 보지 않았고, 인간의 마음 속에 미움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 쉽게 물러가는 ‘위장 평화’라고 여겼다.

또 당시 세계 정세를 넓게 바라볼 때,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 없이 서로 싸우는 두 개의 세계와 사상이 대립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큰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세계평화’의 경종을 계속 울리고 ‘복음선포’를 통해 사해동포와 만민협조의 사회 건설을 도모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 고국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전국을 순회하고 있었다.

야다 목사는 소록도 한센병 구호 시설에서 5년간 봉사했던 인물로,



소다 가이치가 약 1년간 시무했던 우치노우미 교회 모습.

소다 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애로원의 보물이고 빛이었다. 동시에 일본의 자랑이자 크리스천의 거울이었다. 이토록 복잡한 정세가 된 한일 양국을 융화시킬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88세의 소다 가이치 목사는 종전 10주년을 맞아 도쿄의 한국 YMCA로부터 초청받아 평화기념일인 11월 11일 도쿄를 방문한다. 도쿄의 YMCA는 종전 10년을 맞아 한국인들을 도운 일본인들을 초청했다. 이 모임과 그에 대한 소다 가이치의 다음 말 속에는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일 관계 일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며 너무도 불쾌한 일이 많은 이 무렵, 기획자의 따뜻한 마음이 진정으로 기뻐했다. 종전 후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한국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성실의 사랑을 했던 사람으로 높이 평가받는 일본인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지 나는 그릇만 생각했다.”

이 모임에 초청된 ‘한국을 도운 일본인’은 11명이다. 소다 부부와 함께 가마쿠라 보육원 경영에 힘썼던 스다 캔타로우 선생, 고창고등보통학교를 세워 1907년부터 해방까지 한국인 교육에 공헌한 마스토미 테루코 여사, 1905년부터 40년간 빈곤층의 조산과 구제사업에 전념한 가와무라 노리 여사, 군산에서 농장을 경영하며 농민진료소를 열어 무의농촌 의료사업에 공헌한 구마모토 리헤이 옴, 1913년부터 20여년간 고아와 장애아의 교육사업에 헌신했던 스도우 노부시의 부인 스도우 쇼우 여사 등이다.

또 해학전문학교 교장으로 20여년간 청년교육과 불교연구에 전력

한 에다 토시오우 선생, 화광학원을 세우고 20여년간 한국인 아동교육과 사회사업을 했던 아키노 미츠 여사, 한국인 전도에 힘쓰고 재일한국인교회를 위해 봉사중인 모리 후지 여사, 한국인 전도에 반성을 바치고 교토한국인교회 목사로 재임 중이던 오다 나라치(전영북) 목사 등이다.

한국으로의 귀환, 소천과 국교 정상화

소다 가이치 선생은 말년을 한국에서 보내길 원했다. 그가 93세 되던 1960년 1월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통령 이승만의 오랜 친구인 소다 옴이 한국 귀환을 열망한다’는 기사를 썼다. 이를 서울 AP 통신 기자가 다시 한국 신문에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가마쿠라 보육원을 이어받아 영락보린원을 운영하던 한경직 목사는 “소다 옴이 제2의 고향 한국에 오겠다는 것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년 후인 1961년 3월, 재정보증서와 초청장을 보냈다. 그해 5월 6일 소다 옴은 오사카를 떠나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94세의 소다 옴은 공항에서 한경직 목사와 당시 NCC 총무 김진경 목사, 옛 친구인 서울 YMCA 이명원·이인영 선생, 김우현 목사, 베이커 협동총무, 전택부 선생 등의 환영을 받았다.

그는 고아들을 무료 위에 앉히고 행복해했다. 그러나 한국에 온지 1년도 안 된 1962년 3월 28일, 9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한 달 뒤인 4월 28일, 우리 정부는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소다 옴의 장례식은 1962년 4월 2일 시민회관에서 사회장으로 거행됐다. 영락보린원과 YMCA를 비롯

해 NCC, 한국사회복지사업전국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문화·종교·교육·경제 등 19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고, 장지는 당시 양화진 외인 묘지였다. 묘비 글은 주요한 선생이 지었고, 글씨는 김기승 선생이 썼다. 서거 1개월 후인 4월 28일 일본에서도 추도식이 거행됐다. 2년 후인 1964년 한국에서도 추도식이 준비됐다. 서울 YMCA 강당에서 거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대 전화와 협박장이 사방에서 YMCA로 날아들기도 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여론이 들끓던 시절이었다.

국교 정상화 전이라 일본인을 정식으로 초청하기 힘들 때였지만, 소다 옴의 조카와 고향 방장신문 사장 후우라와 아베 내외가 왔다. 아베의 부인은 전 수상 기시의 딸이었다. 기시는 소다 옴의 고향 사람으로서 소다 가이치를 매우 존경하는 친한 정치인이어서 직접 참석하려 했지만, 사정이 생겨 딸과 사위를 보낸 것이다.

전택부 선생은 “소다 옴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헤아려 보건대, 한일 국교 정상화는 소다 옴 서거 3년 2개월 후인 1965년 6월 22일 성립했다”며 “추도식에 참석한 방장신문 사장은 귀국 후 한국 방문기에서 조속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역설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국교 정상화 조약이 체결됐으니, 어찌 소다 옴의 평화 정신과 관계 없는 일이라 하겠는가”라고 적었다.

소다 가이치 부부는 폐결핵 전문 의료선교사로서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했던 셔우드 홀 케나다 선교사(1893-1991)의 묘지 뒤 아담한 자리에 안장돼 있다.

이대웅 기자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진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62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9301 Fax: (323)643-9302
www.aeu.edu/info@au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삶과 신앙 분리하면, 종교의 자유 빼앗길 수도”

이정훈 교수, 북한 선교..전략적으로 고민해야

신앙의 무속화가 문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현재,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정치 아카데미에 주력
법과 정치가 신앙의 자유 빼앗아...교회의 독립 막아야

지난 2월 중순에 사랑의빛선교 교회에서 열린 복음통일 전문세미나에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철학)가 감사로 섰다. 그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출신으로 교회 해체 운동을 진행하다가 극적으로 회심하고, 현대판 바울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는 한때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강연 활동에서 그가 연구한 법과 철학, 그리고 역사적 논증을 통해 기독교 역사를 쉽게 해석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그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반도 복음통일을 위해서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북한을 잘 알아야 하고 선교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셔서 LA와 애틀란타에서 강연하셨는데 소감을 말한다면.

LA 복음통일세미나에서는 지금 한반도가 급변하는 시기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우리 안에 막연하게 ‘기도만 하면 복음통일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닌것 같다. 사람들이 북한 사회 계층 문제라든지, 북한에 대해 너무 모르고, 국제 정세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이 정보를 얻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국제정세는 시나리오대로 흐르지 않는데, 시나리오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을 보면 개별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북핵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그렇게 낙관적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 내부 계층 문제가 복잡한 상황인데, 선교 문제에 있어서 좀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집회에서 개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은혜롭고 좋았다. 애틀란타 경우는 특별히 좋았던 것은 6.25때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나라가 무너진 상황에서 교회가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이런 역사적인 것을 강의했고, 한미동맹의 종합성을 강조했다. 애틀란타 집회에서 예비역 군출신 장군들도 왔고, 목사님들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지금 나라가 위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지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현지 목회자들이 뜨겁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고국에서는 사람들이 늘 듣던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명확한데, 이민교회는 더 고국에 대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편견 없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

강의를 다니면서 반대하는 자들도 있다고 들었다.

지역에 따라 다른데 특히 반대 세력이 교회 장로인 경우에 사교가 난다.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데 그럴 때 교역자들이 포위해서 달래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지만, 시작하기 전에 안티들이 있다가 집회가 끝나면 오히려 회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혹시 회심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집회 취소할 뻔했다. 유럽 집회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회심했다. 그래서 몸이 힘들지만 좀 무리하게 일정을 짜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소속 목사님들도 많이 회심했다. 동성애를 지지하다가 돌이키는 경우라든지, 저는 그때 유럽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시위를 할 때 시위대를 격려하고, 밥을 사줬던 목사님도 안티였다. 그런데 지금은 회심해서 지원 세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반대세력에서 저를 싫어하는데, 이정훈 교수가 정치부분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안 것이다. 청년들 중에 예수는 믿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다가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 그들이 ‘그동안 이데올로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았었구나’ 라고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국제 정세가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크리스천들이 국제정세를 인식할 때 일간에 떠도는 음모론 시나리오에 많이 빠져있다.



이정훈 교수(엘 정책연구원 원장)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를 잘 이해해야 한다. 자꾸 사람들이 ‘복음과 체제가 정치적으로 분리된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건국할 때도 조선에서 공화국으로 그냥 바뀔 수가 없었다. 그 변화에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다.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다. 무의식도 컨트롤 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북한을 알려면, 매슬로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 Theory)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사회는 민중을 관리해야 하고, 카스트제보다 더 체계적으로 신분제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교전략도 거기 맞춰서 분석적으로 체계화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복음이 당장 들어가면 통일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수 있다. 복음이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분석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번 강의에서 역사적인 것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라든지 바른신앙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깜짝 놀란 것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도 무너져있는 모습이 있다. 신앙이 무속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고,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이게 철저하게 말씀 중심 신앙, 개혁주의로 다시 세팅되어야 한다. 우리가 구한말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한말에 기독교인들이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탁월했다. 미국의 1·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길러진 선교사들이 탁월했다.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구해서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참신앙이 길러져야 복음통일이 가능하다. 북한 인

민들의 의식구조, 사회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북한에 전해져야 한다. 스토리 위주만의 북한 사역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청중들에게 감동스토리 전하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탈북하신 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북한 지하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접했다’ 이런 형식은 아주 좋은데, 이것 외에 전략적인 선교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엘정책연구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주력하는 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것, 두 번째는 청년교육, 세 번째는 한미일 민간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신앙인들이 탁월하게 민간외교를 잘 했다. 식민지 상태였을 때 미국의 외교관과 유력인사와 네트워크를 많이 해서 건국에 도움이 되었다. 지금은 그게 약하다. 엘정책연구원에서 말하는 것이,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인데 한미일 민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미일 공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일본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 미국의 기관을 본 따서 PLI(Political Leadership Institute)를 세웠다.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200명씩 총 400명의 1기생을 배출했다. 청년 중심으로 되어있고, 온라인 캠퍼스를 오픈했다. 우리가 신앙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사실 종교개혁 산물인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을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해서 국제관계까지 가르치는 정치 아카데미를 주력하고 있다. 이게 잘 안되면 저는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기독교의 병적인 모습이다. 개혁주의의 본질은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는데, 지금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이 교회인 것처럼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법과 정치가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고립을 막을 수 없다.

지금 교회가 고립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만 자유를 말하고 밖으로 나오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다. 그런 사회로 흐르고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킨다. 철저하게 개혁주의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오는 기독교적 가치 수호,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기 원하고, 교민들도 온라인 캠퍼스를 통해서 좋은 강의들을 다 접할 수 있다. 교수진으로 현직 외교관, 요미우리신문 서울 지국장, 산케이신문 국장, 외신 기자 등이 있고 제가 신앙의 기초를 깔아주고 전문가들이 국제정세를 말해주는 구조로 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왜 중요하고, 이런 것을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해서 가르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는 하이라이트만 공개하고 있다. PLI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다. www.Pli.kr

토마스 멩 기자

THC Free
각기능없음

Dietary Supplement

대마햄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신이 내린 항암식품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망한 천연물입니다.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비노이드를 차세대 영양물 풀이되어 인, 뇌건강 치료와 노화방지 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식품입니다.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항암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 만성통증, 불안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천연물로서 건강과 웰빙에서 탁월한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 대마씨 햄프시드는 미국 타임지에서 슈퍼푸드 선정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 각종 항암 식품으로서 최고의 효과
※ 당뇨 혈당수치 정상화에 크게 도움
※ 심장마비, 뇌졸중에 적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
※ 대장에 도달해 나트륨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속변 제거 및 대장암 치료 예방**에 효과적
※ 햄프함초에 함유된 베타인(betaain)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움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MANUFACTURED IN THE USA

\$250 +tax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햄프함초 제품 개발자

CBD BAJAHAMCHO Inc. www.hempbiousa.com Tel.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 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저렴한 회비 월40불부터 가입 가능 <small>(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small>	낮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
골드플러스건강검진비지원 매년 \$500 건강 검진비	의료비 지원금 질병당 \$150,000	Burden Sharing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
 캘리포니아 사무실: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

